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1 | 6 | 제148호



전주교마산교구 사목국

---

# 소공동체 모임 순서

---

- ▶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 ▶ 소공동체모임 시작 전, 매월 2째주 혹은 3째주 주일의 복음 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성호경/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 )번, (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2.인사 나누기

-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진행]**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 3. 전 모임 기록 낭독

**[진행]**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 4. 길잡이에 의한 복음 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진행]** · 길잡이에서 (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펴면)

[1] 주님초대하기

[2] 하느님 말씀

1) 복음말씀을 읽는다.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5] 말씀살기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6] 마침기도

---

# 소공동체 모임 순서

---

##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진행]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 6.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 [진행]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진행]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 · 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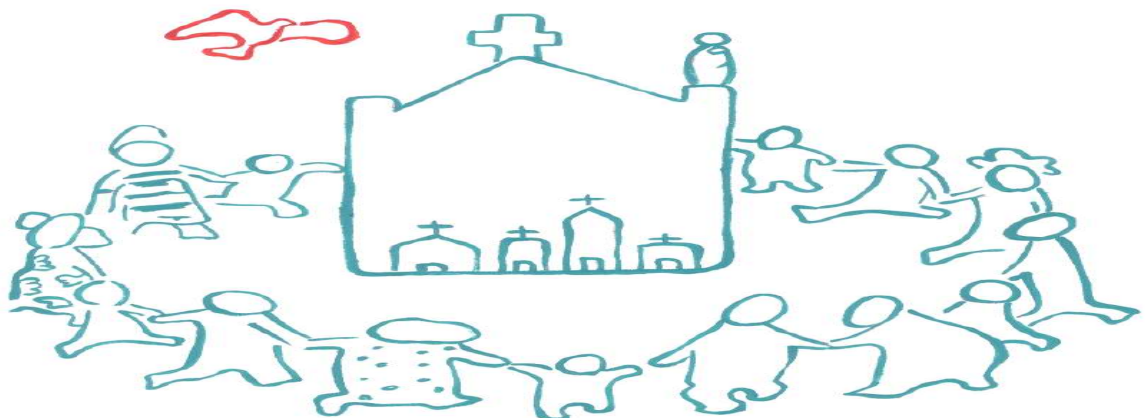
-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진행]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 [진행]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 9. 마침성가

-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 )번 (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 복음 나누기

연중 제11주일 (6월 13일)  
어떤 씨앗보다도 작으나 어떤 풀보다도 커진다  
(마르 4,26-34)



### 하느님의 나라

그림 정미연 소화데레사 | 화가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드러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어떤 나무보다 커져 우리에게 평안한 그늘과 안식을 줍니다. 저절로 자라나는 나무나 곡식의 신비를 생각할 때 하느님의 사랑이 한없음을 눈물겨워 합니다.



## 복음 나누기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가 당신 사랑 안에 머물게 하소서.
- 주님! 저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마르코 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26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27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되는지 모른다. 28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이삭에 낱알이 영근다. 29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30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31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32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뿜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33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34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되는지 모른다." (마르 4,27)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나요?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마르 4,30)

나의 삶의 과정이 하느님 나라를 잘 드러내고 있나요?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복음 나누기

###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엄마 품에 잉태되는 순간 따뜻한 품속에서 양분을 받으며 자라다 때가 되면 큰 울음을 터트리고 세상으로 나오게 된다. 탄생의 순간이다. 그렇게 웅알이를 하며 자라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몸을 움직이며 뒤집기를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앉으려, 그리고 주변을 활용해 서려고 발버둥을 친다. 드디어 서게 되면 걸으려 한다. 이제 아장아장 걷게 되면 뛰려고 발버둥을 친다. 사람은 그렇게 성장의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과정들을 다 기억하고 있을까? 태어나서 웅알이를 하던 시절부터 그 모든 과정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해 왔다. 조금씩 조금씩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해 온 것이다. 작은 겨자씨가 서서히 성장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은 성장해 간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시간의 과정을 겪으며 성장해 가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 성장의 과정에 있는 것이다. 그 시간들이 은총의 시간이길 바란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복음 나누기

연중 제12주일 (6월 20일)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마르 4,35-41)



풍랑 속의 그리스도  
그림 엠브란트, 1633



## 복음 나누기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59번 "주께선 나의 피난처"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마르코 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35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36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 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37 그때에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38 그런데도 예수님께서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39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40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41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마르 4,38)

우리는 주님께 어떤 불평을 하나요?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마르 4,40)

예수님께 말길 준비가 되었나요? 아니면 아직 되지 않았나요?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복음 나누기

###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선 나의 피난처 의지할 곳 주님뿐/ 풍파가 심할지라도 내게는 평화있네/ 메마른 우리 영혼에 새 생명 주옵시며/ 주안에 영원한 안식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시작성가로 이렇게 노래 했다. 주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노래하며 고백했는가? 진정 주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신가? 그렇다면 나에게 닥치는 풍파를 잘 헤쳐 나갈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나에게는 풍파만 있고 이를 뚫고 나갈 힘이 없다면 과연 무엇이 내 앞을 가로 막고 있는 걸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뢰다. 믿음이다. 믿는 존재에게 우리는 무엇인가를 말할수 있다.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말기는 것이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풍파, 고난과 시련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할수 있다. 어쩌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할수 있는 용기가 부족해서 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선 내 자신을 말할수 있는 용기부터 청하자.

###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59번 "주께선 나의 피난처"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함께하는 소공동체

### 성사표를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 - 덕산동본당 덕산1반 반장 오순실 마리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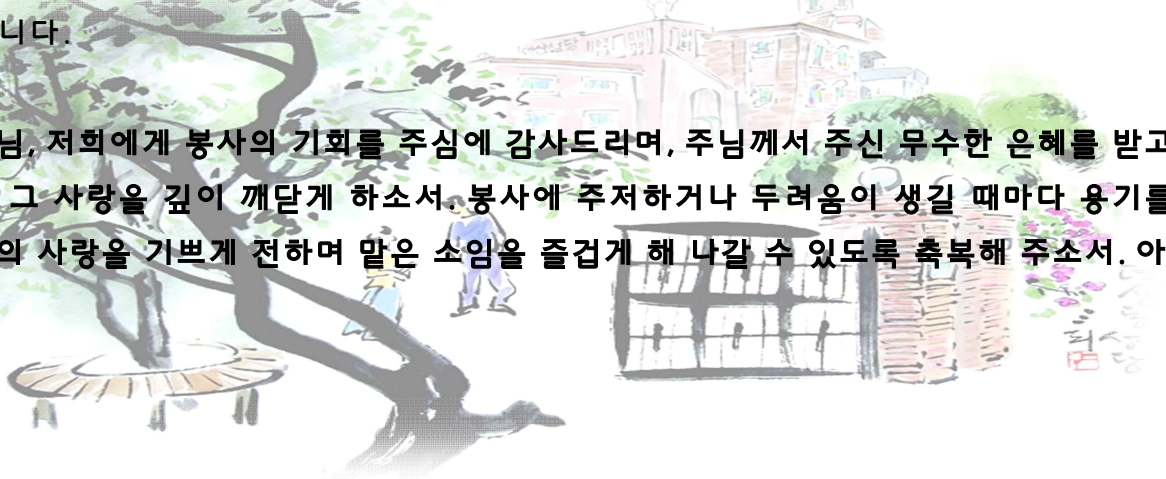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쉬는 날에 맞춰 늦은 시간에 소공동체 모임을 하고 있는 저에게 때마다 찾아오는 판공성사표 전달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난 적도 없는 교우분들에게 전화를 드려야 하는 일은 늘 긴장감과 어색함이 감돌았고, 대다수의 분들은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문자를 드려도 답이 없어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성사표에 나와 있는 주소가 아파트인 경우에는 쉽게 찾을 수 있었지만, 일반 주택일 경우에는 찾기가 어려워 본당 사무실에 반납한 표가 더 많을 때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위치는 물론 집 모양까지 자세히 볼 수 있어 한 집씩 찾아다니며 방문하고 있습니다. 세대마다 봉투에 성사표와 함께 코로나로 인해 변경된 미사 시간과 고백성사에 대한 안내글을 담고, 궁금하신 점은 문자 주시길 바란다는 제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도 함께 동봉하였습니다. 주로 평일에 방문 하다보니 만날 수가 없었고, 그 집에 살고 있는지 이사를 갔는지 확인조차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주일에 방문하였더니 그동안 늦은 밤 다시 방문해도 만나지 못했던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교우 댁에는 열린 현관문 안으로 큰 불교 그림이 걸려있어 그분이 냉정한 얼굴로 외면하지 않을까 하며 긴장과 조바심이 났지만, "누구세요?" 하며 나오시는 분이 저를 오히려 "성당에서 오셨어요?" 하며 웃는 얼굴로 반겨 주시며, 성사표의 주인인 자매님은 외출중이라 오시면 전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낯선 이들을 만나야하는 부담을 갖고 찾아갔지만, 쉬는 교우분들을 만나고 보니 숨어있는 보물을 찾아낸 듯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전입오신 분들에게는 전화로 방문 약속을 하고, 작은 선물과 함께 인사를 드리면서 얼굴을 익히고 잘 적응하시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쉬는 교우분들이 마음을 열고 성당에 나오기를 바라는 것 보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어 그분들께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좀더 용기를 내어보자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에게 봉사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주신 무수한 은혜를 받고 사는 저희가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봉사에 주저하거나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용기를 주시어 주님의 사랑을 기쁘게 전하며 맑은 소임을 즐겁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아멘!





##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소공동체 활성화의 원천인 말씀

#### 말씀과 함께 성장하는 소공동체

소공동체가 더욱 튼튼한 뿌리를 가지고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모임 때마다 정해진 틀에 따라 복음 나누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느님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독서와 교육'이 뒷받침 되지 않는 반복적인 복음 나누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단조로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말씀에 대한 진지한 이해와 묵상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의 부족으로, 소공동체는 일정한 구성원들이 모여 매번 비슷한 수준의 생활 나눔에만 머물기 쉽습니다. 따라서, 소공동체 모임은 말씀을 나누며 활동을 정하는 공동체이기에 앞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맞들여 복음을 실천하는 작은 교회로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느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만나는 데에서 생겨나는 기쁨을 전하는 것은 교회가 받은 선물이며 동시에 회피할 수 없는 교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다시 한 번 하느님을, 우리가 생명을 넘치도록 얻게 하시고자(요한 10,10 참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그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2항)

소공동체 교육 교재 『한마음 한 뜻으로』(천주교 수원교구 복음화국)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